

담양군, '천년 역사' 재조명 사업 펼친다

2018년 '지명 1000주년' 앞두고 추진위 구성

담양(潭陽)이란 지명이 처음 사용된 때는 고려 현종 9년(1018년)이다. 이전에는 마한시대 솔지현(洙只縣) → 백제시대 추자해군(秋子兮郡) → 통일신라시대 추성군(秋成郡) → 고려 성종 14년(995년) 담주(潭州)로 지명이 계속 바뀌어왔다. 새로운 군현제도가 이뤄지며 담양군으로 개칭된 후 승격과 강등이 반복됐지만 지명만큼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담양군이 지명 1000주년을 맞아 '천년고을'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기념사업 준비에 들어갔다.

24일 담양군에 따르면 오는 2018년 '담양군'이란 지명을 처음 사용한 이래 10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담양군은 지명 1000주년을 맞아 천년의 역사성을 재조명함과 아울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천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군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군민과 군 의회, 전문가와 지역역사와 문화에 풍부한 학식을 갖춘 향토 사학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 등 범군민 차원의 추

진위원회를 구성해 기념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담양군 지명 1000년은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다. 동일한 지명을 천년 동안 이어온 지역이 전국적으로도 얼마 되지 않는다"며 "담양군 천년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에 군민들이 크고 작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담양군은 2015년 개최예정인 '세계 대나무 박람회'와 '세계 대나무 협회 제10차 총회'와 함께 담양군 지명 1000주년 기념사업 역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담양군 연혁

- ▲ 삼한시대(마한) 솔지현
- ▲ 백제시대 추자해군
- ▲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년) 추성군 개칭
- ▲ 고려 성종 14년(995년) 담주 개칭
- ▲ 현종 9년(1018년) 담양군 개칭
- ▲ 조선 정종 원년(1398년) 담양부 승격
- ▲ 태종 13년(1413년) 담양도호부 승격
- ▲ 영조 4년(1728년) 담양현 강등
- ▲ 14년(1738년) 담양도호부 승격
- ▲ 38년(1762년) 담양현 강등
- ▲ 47년(1771년) 담양도호부 승격
- ▲ 고종 32년(1895년) 담양군-창평군, 남원부 편제
- ▲ 33년(1896년) 담양군-창평군, 전남도 편제
- ▲ 순종 2년(1908년) 옥과군 등 창평군에 편입
- ▲ 1914년 창평군 담양군으로 통·폐합
- ▲ 1943년 담양면, 담양읍 승격
- ▲ 2004년 현재 1읍11면138리3033마을

강진군 다산기념관

내달부터 공직관 교육

강진군 다산기념관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다산공직관 교육을 시작한다.

군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과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해 다산 공직관 교육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물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군은 올해 다산공직관에 교육생 2500여 명과 일반관광객 1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4월 개관을 앞두고 펜지와 리빙스턴 데이지 등 봄꽃을 다산 교육관과 수련원 주변에 식재하고,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는 등 다산체험 프로그램 손님맞이 새 단장을 마쳤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영암 가야금산조 기념관 문 열어 영암군이 전국 최초로 조성한 가야금산조 기념관이 지난 21일 월출산 기(氣)천랜드 인근에 문을 열었다. 기념관에는 인간문화재 양승환 관련 자료를 비롯해 서울, 부산, 전주, 화순에서 수집한 가야금·장구·단소·산조음악 관련 자료 등이 전시됐다. <영암군 제공>

'홍동백서' 올해도 대박낼까

<영주 사과+나주 배>

홍소핑 판매·광고 등 양 지자체, 공동사업

나주시와 경북 영주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홍동백서'(紅東白西) 사업을 추진한다. '홍동백서'는 우리나라에서 배와 사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주시와 경북 영주시가 손잡고 배와 사과를 하나의 상자에 담아 출시한 상품명이다.

나주시와 경북 영주시 공무원과 유통종사자들은 최근 대전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올해 공동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양 지자체는 올해 대도시 화합 특판행사와 홍소핑 공동판매, 유통업체 관계자 초청 캠퍼, 광고 등 다양한 공동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연계협력을 강화해 배와 사과 소비시장의 매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첫 출시한 '홍동백서' 등 나주배와 영주사과 혼합세트 브랜드는 지난해에 596t을 판매해 42억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했고, 올해 설에도 419t을 판매해 2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과일 소비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홍동백서' 브랜드는 '사과하면 배(倍)가 되는 영·호남 기쁨창조사업'이라는 프로젝트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2013년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되면서 개발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배와 사과 공동 마케팅을 통해 구축한 양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시스템이 사회 전 분야에 퍼져서 영·호남을 포함한 모든 지역이 교류와 화합의 계기로 확대되는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송영철기자 ycsn@

영암 학산면에 하수처리시설 준공

하루 500t 처리 하게 발생하곤 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기존 합류식에서 분류식 형태로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순수 오수 발생분은 하수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오는 2015년 완공목표로 군서면 서구림리와 급정안노리 일원에도 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추진중이다"면서 "앞으로도 수질보전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전북



유기농 상추 수확 남원시 금지면 청산리 대성마을 주민이 겨우내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한 유기농 상추를 수확하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노암 3농공단지 분양

교통 편리·가격 저렴 이곳 농공단지는 동서간 고속국도 관동으로 서울에서 2시간 40분내 진입할 수 있으며, 40분 거리에 광양항만이 자리 잡고 있어 내륙 및 항만물류 이용이 편리한 이점을 갖고 있다.

시는 노암 농공단지에 무분별한 기업유치보다는 환경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내실있는 유망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농공단지의 분양이 완료되면 500여명의 고용과 연간 800억원의 소득 창출이 기대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덕암리 가축분뇨처리시설에 태양광 발전

10억 들여 230kw 규모 는 일일 828kw, 연간 300만kw의 에너지를 생산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소요되는 연간 에너지의 13.6%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42t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화석 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감축하며, 신재생 에너지 활용으로 녹색생활 실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

/고창=유정희기자 cy0370@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 몰린다

올들어 34만명 찾아... 전년비 30% 늘어

경기전·전통 향교 등 문화 시설도 한몫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전주 한옥마을에 몰려드는 관광객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 상권들까지 관광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 말까지 두 달간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34만8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만 1000여명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500만 관광객 시대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600만명을 가볍게 넘길 전망이다.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주말에 한옥마을 인근에서 방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진 지 오래다. 조금만 이틀이 알려진

음식점에서는 20~30분은 족히 기다려야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관광특수는 한옥마을을 넘어 인근 상권으로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초코파이' 빵집으로 널리 알려진 풍년제과는 관광객의 필수 코스가 됐다. 한옥마을에서 5km 이상 떨어진 삼전동 막걸리 촌도 전통 고객이던 지역의 중년과 노년층이 젊은 외부 관광객들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밀려났다.

한옥마을이 폭발적인 인기를 유지하는 비결은 현대인의 '삶의 여유'에 대한 갈망을 풀어주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옥마을에는 전통한옥이 주는

'느림의 미학'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고, 태조 이성계의 어진(御眞)이 모셔진 경기전과 400년 전통의 향교 등 여유를 만끽할 공간이 많다. 전통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20여 개의 문화시설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맛깔스러운 음식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지키며 대중성을 확보해야 하고 교통난과 숙박난도 서둘러 풀어야 하는 등 당면과제도 적지 않다.

무분별한 상업화를 막고 가격과 서비스 모두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음식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나치고 무분별한 상업화를 막고 관광의 품격과 만족도를 높여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방문지로 만드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휴일인 지난 23일 전주시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중심 도로인 태조로가 인파로 넘쳐나고 있다. /연립뉴스

단신

전주 세계소리축제 '국제 페스티벌 25' 선정

전주 세계 소리축제가 최근 세계적인 음악 전문지인 '송라인즈'(Songlines)에서 선정한 '국제 페스티벌 베스트 25'에 선정됐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관계자는 "세계 각지 언론의 주목을 받는 만큼 앞으로 더 폭넓고 차별화된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순창 복실리 석실고분 오늘 현장조사

순창읍 복실리 석실고분에 대한 관계전문가 현장조사가 25일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송민선)가 담당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고분의 축조 시기와 보존가치 등을 판단해 발굴조사 등을 할 수도 있다. 지난달 발견된 복실리 석실고분은 가로 1.46m·세로 2.6m·높이 1.4m 정도크기로, 백제시대 석실고분으로 추정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존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 위급상황 신고 전화기 보급 추진

남원시가 2015년까지 재난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특수단말기를 보급하는 '안심! 빨간 전화기' 사업을 추진한다. 빨간 전화기 사업은 긴급상황 발생시 의사 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이 신고가 어려운 점에 착안해 통신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버튼 하나로 신고가 가능한 전화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급상황이 가족과 소방본부 119시스템에 전달돼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사업대상은 등록된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등이며, 서비스 가 능지역은 동 지역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경찰서, 총기류 일제점검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는 27일 까지 관내 개인소지 또는 자가 보관 총기류(5.0mm·4.5mm)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총기 관련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총기 점검에서 불법 개·변조 등 주요 위반사항 발견때에는 형사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국외 이주자 등 결격 사유자 발견시에는 소제수사를 하게 된다.

김동봉 서장은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총기 소지자를 찾아가 계도와 점검을 함으로써 불만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